

■ 지부탐방 ■

# 2004년 전국 최우수지부로 선정된 당진지부



◀ 좌로부터 한만두 사무국장, 신인철 전지부장, 차선수 지부장, 남청현 부회장, 채란희 간사

▼ 2005년 2월 당진지부는 최우수지부로 선정되어 수상을 수여받았다.



당진지부는 2005년 2월 본회 제26회 총회에서 “2004년 최우수지부”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지부는 뭐가 달라도 다르리라는 확신을 갖고 완전한 봄기운을 느끼며 충남 당진으로 향했다.

당진지부의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일까?

취재 : 이소영

**회**원들과의 만남과 주고받는 얘기가 무척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하다. 당진지부의 회원들은 지부 사무실을 마치 사랑방 같이 이용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스럼없이 드나들며 자주 대소사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부운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비결인가? 이제부터 살펴보자.

## 지부조직 및 회원 단합이 제일 자랑거리

차선수 지부장과 신인철 전지부장 등 당진지부의 임원진들이 지부 자랑의 첫 번째를 회원간의 단합을 손꼽았다.

당진지부는 차선수 지부장(본회 이사)을 비

롯하여 역대 전지부장들과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16명)를 포함해 총 8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지부이다. 1981년 지부가 설립된 이후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당진군내 전업규모 양돈인의 대부분은 당진지부 회원들이다. 또한 사육두수도 당진군 전체 사육두수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 군내에서 당진지부의 역할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선수지부장은 2004년 1월 지부장에 선출되고 지금은 본회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지부장 역임이전에 7년 넘게 당진지부의 총무업무를 도맡아왔다. 따라서 지부의 운영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회원들의 속사정까지도 잘 알고 있는 지부장이다. 또한 전임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당진의 군청이나 통합지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관계자들과 유기적이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돈산업과 지부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내실있는 지부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지부



▲ 당진지부 차선수 지부장

신되는 대규모 행사 등에서 그 결실을 맺는다. 매월 각 1회씩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와 월례회의와 세미나 및 시식회 등은 개최할 때마다 80%이상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11월 6일에 신평삼교호광장에서 행해진 「당진군 농축산물 축제」는 당진지부 회원들의 단합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기관단체장을 비롯하여 농민단체 12개면, 당진군면, 관광객 및 양돈인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소비홍보행사를 개최해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양돈인의 단합된 모습과 좋은 이미지를 재고하며 성공리에 축제를 마쳤다.

### ■ 자체적인 방역근무로 질병유입차단

“농가수는 조금 줄었지만, 두수는 오히려 조금 늘었다. 이는 당진이 질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차선수지부장. 당진은 위치상으로 주변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있고, 근접한 인터체인지가 2개(송악톨게이트, 당진톨게이트)나 있어 차단방역에 불



▲ 회원들에게 군에서 요청하는 행정사무업무를 대행해 주는 등 편의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좌측부터 체란희 간사, 차선수 지부장, 한만두 사무국장

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 지부는 전회원이 참여하여 긴급사항 발생시 자체적인 방역 교대근무로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범적인 방역활동과 철저한 질병관리 덕에 당진은 질병에 있어서만큼 안전하다고 자부할 만하다. 이에 경상북도와 김해시에서는 당진지부와 당진 산림축산과에 견학을 요청해 당진지역의 일대와 당진지부의 농장 등의 질병예방 관리 등을 배우고 돌아간 적도 있다.

“하나의 박멸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들을 열심히 행하면 질병걱정은 줄 것”이라며, “또한 박멸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용 출하차량 마련하여 계통출하 확대 추진

“당진지부는 15농가가 계통출하에 참여하여 공동출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농가는 물론 지부운영에도 도움을 얻고 있다”고 남청현 부회장은 말한다. 회원들의 실질적인 제정 안정과 실이익을 위해 여러모로 연구하고 있는 당진지부의 임원진들은 “당진이 도시화가 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도 농가들은 위축됨 없이 오히려 표정이 매우 좋다. 이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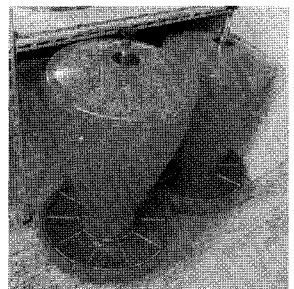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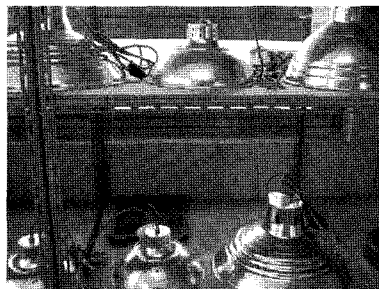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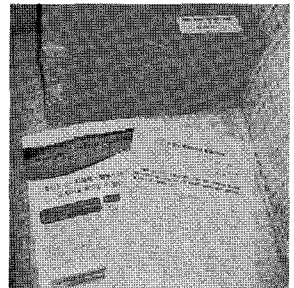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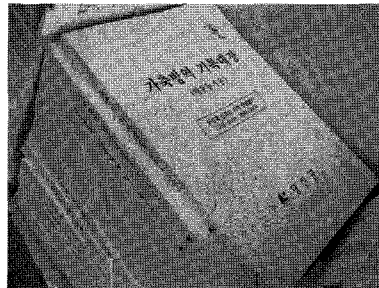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약 2,000만원의 보조를 받고 자부담으로 약 4,000만원을 들여 「비육돈 출하



▲ 일일 시세 및 월중 행사 등을 철판에 기록해 두고 있으며, 하단에는 긴급연락망도 적혀있다.

전용 차량」(탑차)을 구입하였으며, 5월 1일부터 이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다. 차선수 지부장은 이를 계기로 계통출하 사업활성화의 보다 높은 효과와 그 창출이익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즘 농가에서는 톱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축분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비교적 구하기 쉬운 왕겨를 이용해 팽연화시켜서 축분



▲ 군에서 제공하는 가축방역 기록대장 및 소식지와 월례회의 자료 등을 바로바로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또한 축산기자재 등은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값싸고 구하기 쉬운 톱밥대용제를 마련하여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축분비료사업을 현실화 시켜 양돈농가의 부수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일반 중소기업의 양돈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에 맞춰 기장을 하거나 영수증을 취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회계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장료 부담을 농가가 고스란히 안아야 하며, 회계사 수수료 또한 천차만별인 터라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

차선수 지부장은 이를 농가가 회계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양식과 지침을 만들어 주면, 세무회계 처리비용이 보다 저렴해질 것이며 이것이 곧 회원들과 양돈농가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진지부에서는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제정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 지 끊임없이 구상 중이다.

## 「당진군 축산단체협의회」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 전개

당진지부는 양돈인들의 단합에만 그치지 않고 당진지역의 전 축산분야의 단합을 꾀하여 2004년 4월 「당진군 축산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당진지역의 축산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차선수지부장은 이 협의회에



▲ 당진지부 회원들이 사랑방처럼 자주 드나드는 당진지부 사무실 현관앞

서 부회장과 사무국장을 역임 중에 있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당진군 축산단체협의회」는 축산발전을 위해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축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상호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소비촉진과 축산물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의 날을 제정하고 행사와 시식회 등을 펼치는 등 다각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회원이다. 회원 한명, 한명의 참여와 관심이 곧 당진지부의 힘이며, 미래다.

최우수지부라고 해서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긍정적인 믿음의 힘이 큰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임을 당진지부를 통해 비로소 다시 한 번 깨우치게 된다. **양돈**

본지캠페인

5월은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입니다.